

빛과 색으로 엮은 서정회화 70년

조선태미술관 24일까지 김영태 기증 작품전

조선대 미술대 1기 입학생...90세 현역 활동

2010년 기증 200여점 중 80점 선정 전시



◀김영태 화백

▶‘인스부르크 풍경’



“여유있게 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고생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젊었을 적에는 의욕이 있어서 ‘좋은 그림을 그려야겠다’ 일념으로 그리면 좋은 그림이 나오더라구요.”

백열 김영태(90) 화백은 광주·전남에서 가장 원로 작가다. 1946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1급 입학해 1951년 수석졸업했다. 졸업 전인 1949년 조선대 부속중학교를 시작으로 1968년까지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광주·전남 학교에 재직하며 후학을 지도했다.

1967년부터는 광주 일요화가회를 창립해 지도교수로 활동했으며, 1968년부터는 전업 작가로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72년 제 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100여회 이상 국내외 초대전과 외국 스케치 여행을 다니며 활발하게 작업했다.

대학 입학 때부터 따지면 작품 인생 70

년, 어느덧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광주시 동구 학동 화실에서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김 화백의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조선태미술관에서는 ‘빛과 색으로 엮은 서정회화’를 주제로 김영태 화백의 초대 개인전을 마련한다. 전시 개막식은 20일 오후 6시다.

김 화백은 대표작 ‘천불전’(1978년 작)을 비롯, 평생 소장한 작품 200점을 후배들을 위해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에 기증했다. 총장로에 자리했던 화실 화재로 인해 1976년 이전 그림은 모두 소실돼 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기증 작품들은 남도 풍경을 담은 작품 80여점과 작은 형만와 포구 풍경 70여점으로 구성됐다. 또 꽃·정물·인물 등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20여점도 포함됐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작업한 일본·인도·네팔·오스트리아·노르웨이·스페인 등 외국 스케치 여행 작품(30여점)들은 밝고 활기 넘치는 이국적인 색채 변화가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증작 중 80여점을 선별해 선보인다.

김 화백의 초기 작품은 미술대 입학 당시 교수였던 김보현 화백의 지도 아래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김 화백은 “김보현 선생님은 ‘대생 또 대생’이라며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회상했다.

이후에는 후임 교수인 오지호 화백의 영향을 받아 인상주의 화풍을 작품에 담는다. “회화의 모든 양식적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인상과 예술이다”는 신조 아래 남도 자연을 탐구하고 빛에 의해 변화하는 사물과 풍경을 고유한 색채로 표현했다.

1996년 제작한 전시 대표작 ‘인스부르크 풍경’은 평범한 유럽 거리를 소재로 삼아 독창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단순화 시킨 건물과 구름, 차분한 색감 등은 어느 날도 인상주의 작품과는 다른 독창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박상호 조선대 미술대학장은 “지금도 붓을 들고 작업을 하시는 김영태 선생님은 많은 후배 미술인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되는 분이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현재 일본여행을 떠났다. 더 늦기 전 일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움직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갔다오면 다시 작업을 해야지요. 함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다는 느낌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평범하지만 맛있게 살다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문의 062-230-78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인지 첫 개인전 ‘Ever Flowing’

22일까지

은암미술관



▶‘Ever Flowing’

동양화가 김인지씨가 22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Ever Flowing’을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먹 뿐 아니라 방해석, 수정 등 분채를 사용한 ‘Ever Flowing’ 시리즈를 선보인다.

작가는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추상 표현으로 소소하게 담아낸다. ‘Ever Flowing’ 연작은 작업 당시 감정에 따라 표현과 색채를 달리하며 물이 흐르는 듯한 흐름을 보여준다.

즉흥적인 붓 터치는 속도감이 느껴지

고 원과 곡선 등 조형미는 화려함을 연출한다.

김 작가는 “나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 관심이 많다. 매일 무수히 많은 대상들과 마주하며 혼자만의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된다”며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또 내가 보고 느끼고 기억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이화여자대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부를 졸업했고 지난해 이화 아트센터에서 석사학위 청구전을 개최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

내가 찍은 사진, 전시회에 걸어볼까

광주시립미술관 31일까지, 유·스퀘어 내달 5일까지 공모



▶유·스퀘어문화관 8회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자연역자’(박홍철)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장에 걸 수 있는 기회가 잇따라 마련된다. 광주시립사진전시관과 유·스퀘어문화관이 봄을 맞아 사진공모전을 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사진전 ‘광주 오월은 따뜻했네’(4월25일~7월9일) 대상작품을 31일까지 공모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소주제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한 시간’, ‘어린이 주제의 사진(재미있는 스토리)’, ‘광주 5월을 상징하는 공간·풍경’으로 나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진은 광주시립사진전시관 전시가 끝난 후 액자로 제작해 도록과 함께 증정된다.

자세한 사항 미술관 홈페이지(www.artmuse.gwangju.go.kr) 참조. 문의 062-613-7136.

유·스퀘어문화관은 4월5일까지 ‘제9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사진을 접수한다.

핸드폰 사진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 인생의 봄날’이다. 결혼, 여행, 입학식 등 봄에 관한 추억을 기록한 사진이 있다면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접수가 끝나면 입상작들은 시민 전시공간인 2층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5월28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청년 마켓 히어로’ 초대권과 상품권, CGV영화 관람권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홈페이지 참조(www.usquareculture.co.kr). 문의 062-360-84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제’

정광희 개인전 ‘성찰’ 갤러리 리체 30일까지

한국화를 바탕으로 실험적인 수묵 추상 작업을 하고 있는 정광희 작가가 갤러리 리체에서 ‘성찰’을 주제로 30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리체가 봄을 맞아 기획한 한국화 시리즈 두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서예를 쓴 한지를 접어 선과 면의 만남을 표현한 단색화 신작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합죽선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가는 초기 작업에서는 서체를 겹쳐 ‘먹의 확장’을 시도하는 작업을 했다. 신작은 종이와 여백에 대한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 작품 ‘성찰’

은 전체 캔버스를 네모칸으로 나눠 각기 다른 조형 언어를 담았다. ‘흑’과 ‘백’을 강하게 표현한 부분을 비롯해 중간색인 회색을 담아 전반적으로 은은한 맛을 우려낸다.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트리카 쇼나조각

양크로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에나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사랑받는 미술관, 사랑받는 그들만의 컬렉션

- 광주·전남 26개 미술관, 문화공동체의 구심점
- 사반세기 나이에 그린 광주시립미술관
- 사랑받는 미술관들의 공통점, 매력적인 그들만의 컬렉션

남도 시간 속을 걷다①

82년의 세월이 얹은 보성여관에서 부용산의 슬픔, 태백산맥의 서사에 젖는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②

몸으로 배우는 예술교육 제공 파리 퐁피두센터

노중돈의 꿈의 여행③

건축의 혁신과 예술적 품위 스페인 발렌시아

예향이 만난 이 사람

광주U대회 노하우 'U어드바이저' 출간 김윤석, 배미경 나무 주판알 만드는 주판 달인 김준열 FA '100억' 대어 가이타이거즈 와야수 최형우

문화 화제

문인 배출의 든든한 터, 생오지 문예창작촌

배극남의 대중문화X파일④

소설테이너와 톨리테이너를 바라보는 시선

박성진 기자의 문화읽기⑤

‘한국소설이 좋아서’ 50권 선정 전자서평집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⑥

문학과 중국의 뜨거운 품은 정용 화진향

예향 초대석

봄처럼 따뜻한 위로의 시인, 김용택

“시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줘요”

대한민국 식물명인⑦

귀한 약재 ‘복령’과 정성으로 빚은 건강 떡 복령조화고 명인 김영숙

아트 뉴스 & 리뷰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기념 정명화, 손열음, 신지아 트리오 광주 공연

트렌드 따라잡기⑧

무모해도 좋아, 행복하니가 ‘So, yolo’

남도 문화특집

강진

다산과 영랑시, 질투를 타고 강진만 안길 원한날고기백반 갈바탕 등 전라도와 밤 노드엔마랑수신사상 작가들의 정서